

목사의 소회

성경말씀: 고후12:13-19

2주 전에 문자로 고린도후서를 읽으며 목사의 심정을 생각해 보라고 함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행18): 1년 6개월 목회하여 세움
고린도전서는 교회의 여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은 것이고 후서는 자기를 믿지 못하고 비방하며
배신하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바울의 인간미가 넘쳐난다.
바울에 대한 모함과 비방이 들려왔다: 약속을 안 지킨다. 사도가 아니다. 말이 형편없다.
바울의 심정 표현: 1:24; 6:11-13; 7:2-3, 10:1-2, 8-11, 11:5-7; 28; 12:14-16; 13:1-2
이렇게 강경한 말을 하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래서 고후는 목사들을 위한 서신이라고 말한다.
<목사의 소회>, 교회의 역사, 철학, 방향 등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우리 교회

교회의 목표: 1. 뜨겁게 하나님을 추구한다. 2. 신약 교회를 추구한다. 3. 진리의 말씀을 추구한다.

2008년 5월에 시작, 50명, 100명, 230명, 400명

사이트, 유튜브, 서폰오디오 등을 통해 시청자가 계속 붙어남다.

매주 성도들이 찾아온다(5-10명). 문의 전화가 많다.

1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아무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서 건물을 갖게 되고 매주
사람이 방문하며 유튜브 등을 통해 진리가 확산되리라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

건물을 옮길 때마다(30, 90, 220, 500, 700평) 마이너스 재정이었지만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왔고 확장 현금 등에 협조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린다.

과거: 처음에는 가족 같은 분위기, 교회에 와서 갈 때까지 거의 모두가 교제하는 분위기(목사와 함께)

현실: 지금은 목사가 설교하고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 하루가 다 지나감.

1주일 7일 일하며 신학원 강의 4시간, 주일 오전, 오후, 주일학교 교재까지 다 만들어야 한다.

새로 오는 이들이 많고 교회가 커지니 주차관리, 예배, 주방, 주일학교, 관리, 지역 모임, 성경
신화반 등의 조직이 생기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섬김 모임 이후 시행하고 있다.

구세력의 불만: 이전 같지 않다. 목사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조직화하며 대형화를 꿈꾼다. 200명이
던 송내가 그렇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부담이 된다. 목사와 사모에 대한 비방과 가십

신세력의 불만: 목사와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 구세대가 무임승차로 보며 폐를 끼치는 것 같다. 왜
더 신경을 써주지 않느냐? 왜 우리를 따돌리냐? 무리에 들어가기 어렵다.

목사의 어려움: 말씀을 준비해서 전달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비방/불만을 듣고 소화하는 것이 힘들다.

이것으로 인해 다시 불면증이 생겨 약을 먹고 있다.

오는 사람들 중 개성이 강한 분들이 더러 있다: 적응하려 하기보다는 자기 방식대로 안 해 주느냐고
항의

목사의 이야기 외에 다른 형제/자매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듣는다.

집사들, 지역 리더들이 멀리 살므로 교회 형편에 대해 모르는 분이 너무 많다.

지난 주 모세 이야기: 40년간 지도자와 백성의 갈등, 나는 그렇게는 못 산다.

고린도전후서: 사도 바울의 갈등, 나는 배겨내지 못한다.

교회의 팽창: 행6의 히브리파 과부들과 그리스파 과부들 구제 배급 사건이 여기서도 재현되고 있다.

공청회의 내용: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이야기

그래서 성장하는(건강한) 교회의 10가지 조건을 인쇄해서 읽어보라고 하였다.

이제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넘어가야 할 때이다.

영혼의 자유가 무책임으로 변질될 때에는 방종이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모두가 기존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기에 목사는 영혼의 자유를 주려고 한다.

하지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은 목사의 교회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1. 교회의 크기

나는 교회의 크기에 대해 어떤 계획이 없다. 집교회, 작은 교회, 대형 교회 나쁜대로 다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교회는 목사나 교회의 몇몇 성도의 것이 아니므로 미리 자기 생각속에서 사이즈를 정해 놓고 그것으로 성경적이나, 아니냐를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예루살렘 교회 2만명, 100명,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 교회

목사는 교회의 성장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다. 지금은 성장하는 추세이다. 얼마나 같지 모른다.

다만 여기 앉은 여러분은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결정해야 한다.

원치 않는다면 불평을 하지 말거나 교회를 떠나야 한다.

원한다면 새로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맞이하고 희생해서 선한 것을 즐지 고민해야 한다.

2. 목사와 사모의 역할

저와 제 아내는 교회 문제로 수십 년간 고민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얻은 경험으로 이 교회를 한다.

한국의 각종 교회, 미국의 교회들, 목사들을 만나보았다. 10년 전에는 교회를 했다가 망하였다.

지금의 교회는 최선은 아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고 하고 있다. 1주일 내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 생각이다.

가장 큰 가치: 영혼의 자유, 그러나 지금은 이것이 오히려 성도들을 망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염려된다.

내 인생: 20세 이후부터 스스로 자립해서 생활해 왔다. 학교 공부, 성경 공부, 성경 사역 등

그래서 남들도 그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맞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목사: 목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동등한 형제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은 양이요, 나는 목자이다. 지금까지 나는 전자를 강조해 왔다. 그러다 보니 목사는 형제라는 생각만 하는 분들이 있다. 엄격한 의미에서 목사는 목자이다. 다만 복음에 누가 되거나 지친 영혼에 해가 될까 봐 나의 권한과 권리를 제한하고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 교회는 형제 교회가 아니다.

사모: 목사의 아내이기에 역할이 있다. 둘은 하나이다. 둘이 다른 소리를 낼 때가 있다. 그래도 하나이다.

이 사람의 특징: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의견을 모은다. 나는 하나의 자매다.

그런데 이것 역시 남용되고 오용되는 사례가 있다.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하는 이들이 있다.

이 교회는 목사를 침례교회이므로 어쩔 수 없이 목사와 사모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닮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일만 스승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오거든 목사가 독재하거나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여러분이 목사와 사모의 의견과 경향에 맞추려고 해야 한다.

3. 회중 교회/독립 교회

이 교회는 회중 교회이니 모든 것을 회중이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회중 교회라 함은 누구나 형제/자매로 동등함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목사의 지도 없이 모든 것을 회중이 혹은 집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회중교회가 아니다. 행15장의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는 투표의 예가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투표를 최소화해야 한다. 하나님의 방법은 한 지도자를 써서 회중을 치리하게 하는 것이다. 역사의 증언이다.

다른 독립 교회와는 다르다.

어떤 분들의 주장: 왜 사모를 포함한 자매님들이 교회를 주장하느냐? 자매들은 교회에서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다른 독립교회들은 다 그렇다.

독립 교회의 의미: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하는 것이 독립 교회이다.

남들이 무어라 해도 나는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다.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교리적인 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는 형제나 자매나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낼 수 있다. 누차 이야기했지만 지금까지 이 교회가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자매님들이 건강하게 자유롭게 활동하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자매님들은 형제들에 비해 말이 많고 가십거리를 읊기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나 자매나 누구든지 건전한 의견을

내고 마음대로 섬기게 하는 것이 나의 철학이다.

4. 오래 되신 분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부탁하는 말

내 의견대로 해 달라고 하지 말고 이 교회 목사와 사모의 생각과 시스템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바란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보면 한이 없고 결국은 교회 밖에까지 가서 자기의 한을 풀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지역 교회는 죄가 없는, 완벽한 천사들만 모여 있는 데가 아니다.

목사와 사모를 비롯해서 모두가 처참한 죄인들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목회 철학에 따라 앞으로 나가야 하므로 여기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속히 정리를 해야 한다. 본인의 평안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말이다.

오해가 생길 수 있다. 당연하다.

그러면 본인에게 와서 묻고 서로 이해해야지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데 말이 돌기 시작하면 힘들다. 지금까지 부목사를 두 명 두었다.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에게 어떻게든 기회를 주어서 목회할 수 있게 해 주려는 것이 나와 아내의 생각이 다. 그래서 어떤 때는 무리를 해서 데려온다.

그런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회가 와서 나가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긴다.

목사와 사모에 대한 신뢰 부탁

목사는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다. 내쫓는 사람이 아니다.

교사, 집사, 리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목사는 교회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런 결정을 내리지 어떤 특정 인물을 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데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

목사와 사모는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1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쓰고 우리 세대를 섬기다가 죽을 것이다(15).

교회에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다(16).

우리는 여러분을 세우기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19).

결론

1961년 케네디 취임 연설: “조국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지 묻지 말고, 당신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지 물어라.”